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2): WorldCat Local



심 경

정보학박사
한국도서관협회 평생회원
(주)아이리스넷 대표
shim@irisnet.co.kr

OCLC WorldCat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OCLC의 종합목록 이름이다. 1971년 처음 온라인으로 출발한 이래 WorldCat은 참여 도서관이 서지레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고 소장처를 수록하는 서지유틸리티로서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의 기반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2007년 말 현재 WorldCat은 360여 개 언어, 9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9천만 이상의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가 오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OCLC는 전통적으로 사서를 위한 서비스였지, 최종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아니었다. 그러한 OCLC가 최종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러한 시도는 그들의 생존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도서관분야에 큰 이슈가 되는 “변해야 산다”는 판단을 일찍부터 하지 않았다면, 굳이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OCLC는 2003년부터 “Open WorldCat”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서지데이터베이스 중 일부를 간략 레코드 형태로 Yahoo, Google, 그리고 온라인 서점 등 제휴를 맺은 사이트에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모든 웹 검색엔진이 WorldCat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최종이용자를 직접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OCLC가

2005년과 2008년에 수행한 이용자 인식조사에서도 이런 흔적은 드러난다. OCLC가 위 조사를 수행한 18개월 사이에 웹 상에서 검색엔진의 사용은 19%, 온라인서점 이용은 5%, 블로그 이용은 30%, 이메일의 사용은 24%가 각각 증가한 반면, 도서관 웹 사이트의 방문은 33%가 감소했다고 한 결과를 봐도 이용률에 OCLC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 한편 Alexa.com²⁾이 2008년 초에 발표한 웹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의 순서에서 Yahoo가 1위, Google이 2위를 기록했지만 MIT 도서관은 1,609위, WorldCat은 12,989위, LA Public Library는 47,989위였다. MIT도서관은 2007년 초보다 750위에서 하락하였고, LA Public Library는 35,000위에서 하락하였으나, WorldCat은 40,000위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노력이 결실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최종이용자를 타겟으로 한 OCLC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WorldCat Local이다.

WorldCat Local

WorldCat Local은 최종이용자를 타겟으로 각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일부인 OPAC을 WorldCat 으로 대체하여 개별도서관이나 컨소시엄을 위하여 개발한 차세대도서관목록 패키지이다. 다음에서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OPAC을 중심으로 하여 WorldCat Local의 특징을 간략히 기술한다.

✓ 검색범위 확장

기존 도서관시스템은 이용자 검색결과를 자관이 소장한 자료나 컨소시엄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종합목록을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WorldCat Local은 정확히 반대의 수순을 제공한다. 여기서 반대 수순이란 그림 1의 '① 검색대상 소장처 pulldown 메뉴' 처럼 기본적으로 WorldCat을 검색하고, 다음 Summit 컨소시엄³⁾, 그리고 University of Washington의 소장정보 순으로 검색하도

1) Discovery on the Web: WorldCat Local Puts Your Library Where Your Users Are. March 27, 2008. Online Seminar.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worldcatlocal/overview/websessions.htm>

2) 정식명칭은 Alexa. The Web Information Company로 그 URL은 www.alexa.com이다. 이 회사는 웹 물바를 제공하여 이용자 행태를 추적하고 웹 방문 랭킹 등 웹 상에서 이용자 정보검색행태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웹 검색 플랫폼 및 검색엔진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우리가 잘 아는 Amazon이 이 회사의 웹 검색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다.

3) Summit은 오리곤 주와 워싱턴 주에 소재한 36개 대학도서관을 회원으로 하는 Orbis Cascade Alliance 컨소시엄의 지역 종합목록으로 정식명칭은 Summit Regional Catalog이며 Summit는 그 인터페이스를 주로 지칭한다.

록 하여 이용자에게 일단 넓은 범위의 검색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OCLC의 WorldCat을 우선적으로 검색함으로써 그에 포함된 GPO, PubMed, ERIC 데이터베이스와 ArticleFirst를 대상으로 한 3천만 레코드 이상의 기사색인 정보도 함께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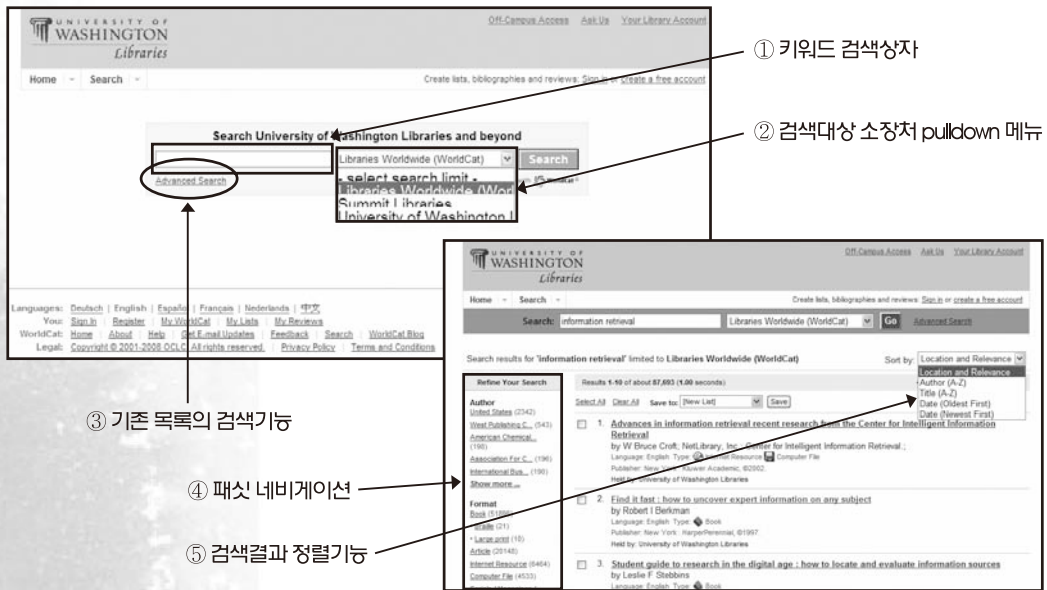


그림 1. WorldCat Local의 검색화면 및 검색결과화면

✓ 패시트 네비게이션

그림 1의 ①과 ②는 AquaBrowser에서와 동일하게 일반 웹처럼 단순한 검색상자를 제공하되 기존 OPAC의 상세검색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그림 2의 ①도 참조), ④ 패시트 네비게이션은 검색결과를 Author, Format(단행본, 연간물 등 자료형태), Year(발행연도), Content(논문, 전기, 소설 등 자료형식), Audience(청소년 vs. 일반 등 이용대상자 수준), Language, Topic 등으로 제한하는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WorldCat이 MARC 포맷을 기반으로 구축된 서지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며, 특히 자료형태, 발행연도, 자료형식, 이용대상자 수준, 언어 등은 우리가 흔히 고정장(Fixed Length Field)이라고 부르는 MARC의 008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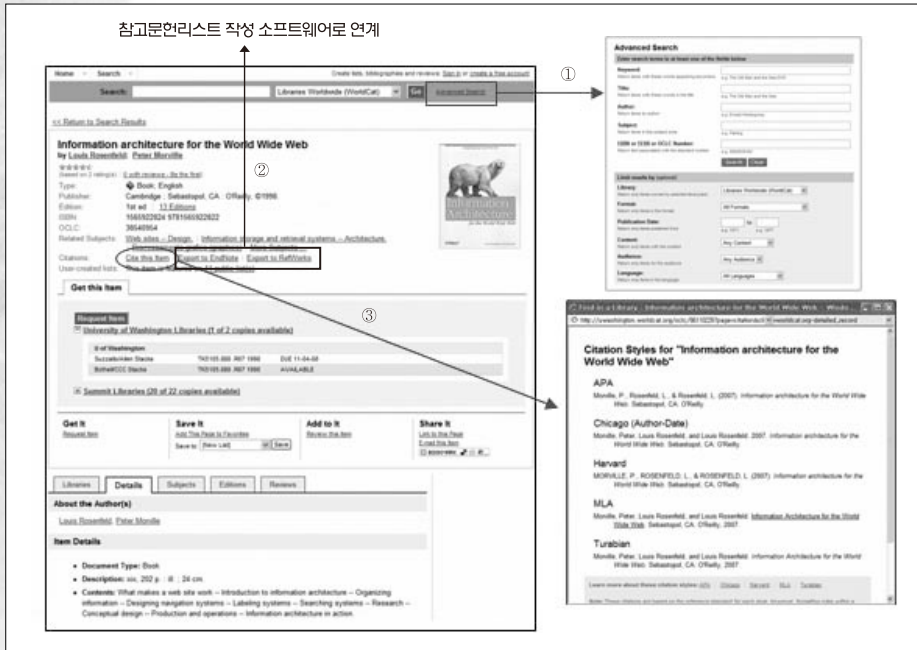


그림 2. 검색결과 상세화면 및 기능 1

✓ 개별 도서관화 및 WorldCat과의 동기화(synchronicity)

그림 2는 WorldCat의 검색결과 기본화면에 “Get this Item”이라는 해당 도서관의 소장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별 도서관“화”한 검색결과 화면이며, 이를 클릭하여 개별자료의 대출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정보는 개별도서관과 OCLC 소장정보가 일치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결국 WorldCat Local이 기본적으로 WorldCat정보에 의존하고 부가정보를 자관의 통합도서관시스템에서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orldCat과 WorldCat Local은 동일 검색문에 대한 검색결과 문헌 수도 서로 일치한다. 하지만 검색결과와 정렬순서는 상이한데 이는 검색엔진이 적합성 순위화를 하는 과정에서 WorldCat Local은 자관이 소장한 자료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WorldCat에서 높은 적합성 순위를 가졌던 자료라도 자관이 소장하지 않는 것은 WorldCat Local에서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개별도서관 정보의 확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WorldCat과 자관 소장정보의 일치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OCLC 데이터베이스가 개별도서관의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두 시스템 간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WorldCat Local이 자관 OPAC처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OCLC 회원도서관의 업무 시나리오는 OCLC로부터 서지레코드를 제공받고 그곳에 소장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그렇지 못하여 이 둘 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는 서지레코드를 OCLC 이외의 소스에서 가져오고 OCLC에 소장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경우이다. 이 문제는 흔하게 발생하며, Univ. of Washington은 초기 적용 시 동기화가 되지 않은 자료군(群)을 이용자에게 “무엇이 빠져있는가”를 공표하는 것으로 임시 해결을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WorldCat Local이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사안이며 국내의 도서관은 이 문제로 인하여 WorldCat Local을 도입하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⁴⁾. ②의 상자 안에 “Export to EndNote”와 “Export to RefWorks”는 MARC 포맷으로 된 정보를 상용(商用) 서지관리시스템⁵⁾으로 연계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활용은 메뉴에 나열된 상용제품을 해당 도서관이 구독 또는 구매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③ Cite this Item” 메뉴는 위에 설명한 상용 패키지를 구독하지 않는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원하는 스타일 매뉴얼 방식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스타일의 cut & paste가 가능하여 앞에서 언급한 기능의 차선책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학술논문 작성이 빈번한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기능으로 WorldCat의 기본기능이다.

✓ 풍부한 콘텐츠(Enriched Content)

그림 2와 3처럼 WorldCat Local은 표지 이미지 이외에 이용자 제공 서평(그림 3의 ③)과 등급(그림 2와 3 왼쪽 상단의 별들) 입력을 허용하지만 AquaBrowser와 비교하여 레코드에 다른 곳에서 수집한 요약이나 서평과 같은 부가적인 콘텐츠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WorldCat의 서평 입력기능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고, 이용자가 서평을 쓰기로 결정하면 등급 부여를 위한 풀다운 메뉴가 제공되는데 이는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의 5 단계 순위로 구성된다. 그 밖에 상세사항(detail)에는 이용자가 노트나 해당자료의 목차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물론 이 밖에 한글 인터페이스나 한글검색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해결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WorldCat과의 동기화 문제는 대부분 OCLC 회원이 아닌 국내 도서관에게는 심각하다.

5) 이는 영어로 citation manager라고 하며 참고문헌을 관리하기 위한 패키지이다. 예를 들어 OPAC에서 검색한 자료는 논문에 인용할 경우 반입하여 원하는 형식으로 (예. APA style 또는 Chicago style 등으로 자동 변환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근래에는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며 웹 상에서 호스팅 서비스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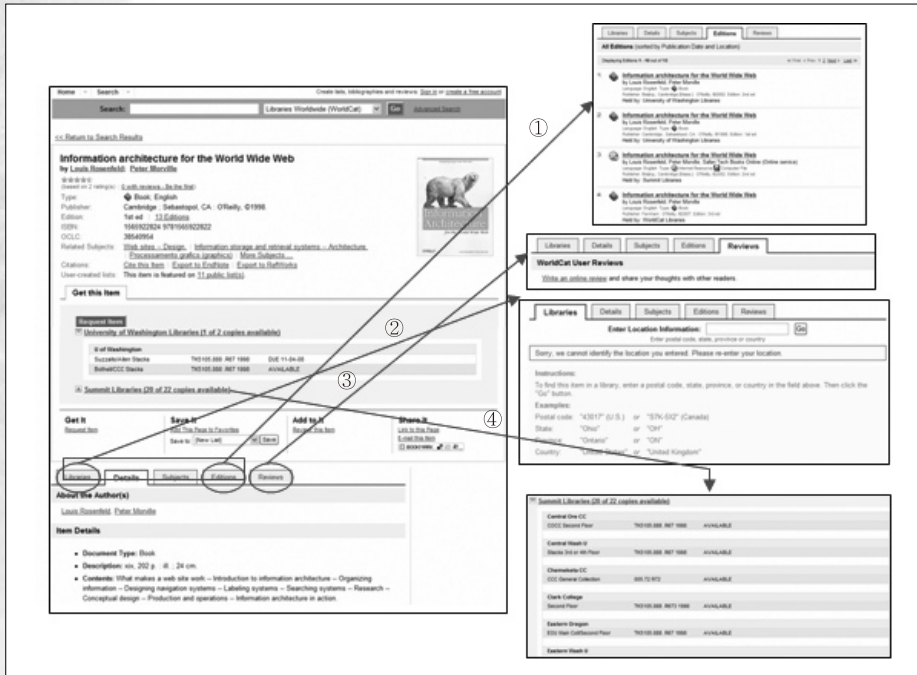


그림 3. 검색결과 상세화면 및 기능 2

✓ 관련자료 그룹핑(Grouping Related Material)

그림 3의 “① Editions”는 현재 이용자가 보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판에 계층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는 이전에 살펴본 FRBR의 개념 중 구현형을 적용한 사례로서 OCLC가 FRBR의 원리를 WorldCat에 적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림 3의 ①과 같이 책이 하나 선택되면 해당 자료의 다른 판에 대한 정보가 리스트로 제공된다. 현재 예는 다른 판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나 문학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출판사의 책, 대형활자본과 오디오북 등 판 이외의 구현형(manifestation)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하지만 특정 소설에 기반한 영화는 FRBR에 따라 별도로 최상위 수준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영화를 독립적 예술작품으로 보는 FRBR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룹핑과는 무관하나 “② Libraries”는 옆에 보이는 창과 같이 “Enter Location Information” 상자에 주(州)의 명칭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도서관 OPAC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화면에 제시되는 도서관리스트는 WorldCat의 소장정보에 기반한 것이다⁶⁾. 앞서 언급한 “③ Reviews”는 Library 2.0에서 말하는 이용자

6) 확실치 않아 www.oclc.org/worldcat에서 동일한 검색문을 입력해 본 결과, 동일한 대상 도서관을 나열하고 있었다.

참여 기능으로 서평을 WorldCat에 입력하는 것으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림 4의 ③과 중복기능이다. “④ Summit Libraries”는 바로 위에 Univ. of Washington 소장정보 이외에 참여 컨소시엄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각 도서관의 대출여부까지 보여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Library 2.0 기능

엄밀히 말하여 그림 4에 표시한 기능은 Library 2.0 기능이라기 보다는 웹 2.0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림 중 ②~④는 이용자 참여와 소셜북마크 및 북마크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③의 서평쓰기 기능은 앞서 언급한 바로 아래 “Review” 메뉴와 동일한 기능이나 인터페이스가 전자는 Univ. of Washington의 것이며 후자는 WorldCat의 것이다. 하지만 후자에 등록된 이용자가 동일 ID/PW로 전자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서평이 WorldCat에 등록되는 동일한 기능으로 추정된다. 또한 “① Get it”은 Library 2.0 기능은 아니며, 바로 위의 “Request Item”과 동일하게 상호대차신청 메뉴이다. 이 두 기능은 2개월 전까지 병존하였으나 최근 “Get it” 메뉴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아직도 시스템이 수정 발전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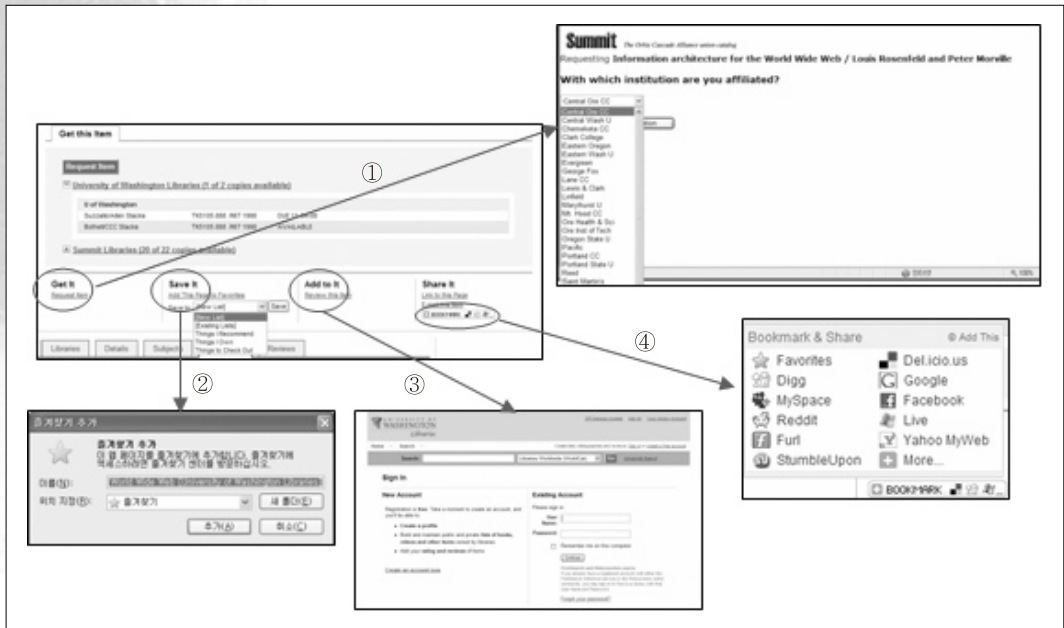



그림 4. 검색결과 상세화면에서 Library 2.0 기능

결언

앞선 설명에서 보듯이 WorldCat Local은 아직은 베타버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메뉴의 중복과 짧은 기간 동안의 메뉴항목의 변화 등이 이를 시사하며 동기화 문제도 최종 버전이 되기 위하여는 선결되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WorldCat Local을 설명하는 중, 현장 사서들에게서 자주 받는 도서관자동화 회사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뭘든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건지, 작업이 많은데 무료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또는 “시연할 때는 잘 되던 것이 써 보니 엉망이다” 등 불평 섞인 질문들이다. 이러한 입장은 벤더 측도 비슷할 것이다. “틀림없이 설명해 주었는데, 그 때는 뭘 하다가 다른 소리한다”고 불평한다. 필자는 국내외에서 소위 말하는 “갑”과 “을” 모두 경험해 보았다. “을”일 때는 “갑”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갑”이 되어보니 “을”에게 불만이 생겼다.

이런 현상은 외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미국 사서들 간에 유명한 격언(?)은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도 결코 벤더에게 기대하지 말라!(Never expect the obvious from vendors!)”는 말이며, 도서관분야 리스트서브(listserv)에는 특정 벤더와의 사업에 관한 “공포이야기(horror stories)”를 구하는 질문이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필자가 확신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일반적으로 “벤더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최선책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약간의 전산지식과 시스템에 관련된 공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차선책이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자신 혹은 이용자의 업무를 직접 인쇄심을 가지고 수행해 보는 것이다. 벤더가 시험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미 구매한 곳에 가서 세밀히 써 보는 것이 판단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지는 않을지라도 몇 년은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단, 사용기관의 감정적 평가는 무시하고 직접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잡습니다▶▶▶

- (10월호) 1) 49쪽: 각주 2)에서 “하지만 여기에 부정적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국내 사서들 덕분에”를 “하지만 여기에 부정적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좋은 의견도 많으며**, 이와 같은 국내 사서들 덕분에”로 고침.
2) 50쪽: 맨 아래 줄 “기존 검색인터페이스의 보존수단...”의 보존수단은 “보조수단”으로 수정함.
- (8월호) 1) 58쪽: “포털의 발생과 기능” 부분을 시작으로 이 글에서 “포털”과 “포털시스템” 또는 “포털패키지”가 구분없이 사용되었음. 포털의 발생은 Yahoo와 같은 일반 포털을 그 발생의 기원으로 보며 이 글에서는 “포털 패키지”를 의미하였음.